

수익모델 등 AI 가치 의구심 IT업계 “내년부터 성과 가시화”

글로벌 ‘AI 거품론’ 대두

빅테크, 성장세 비해 수익성 미미
시장·투자자, 산업 성과 예의주시
IT업계 “실체없는 투기열풍 아냐”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대두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영화 ‘빅쇼트(Big Shorts)’의 마이클 버리가 AI 관련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큰 거품이 졌다는 그의 전망으로 지난 4일(현지시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8%까지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까지 출렁거렸다.

그러나 IT업계 관계자들은 “GPU 등 AI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기인 만큼 대규모 비용이 오갈 수밖에 없다”면서 “AI 시대 거품을 논하기에는 본격적인 AI 에이전트(AI Agent)의 상용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을 증권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거품’이라

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클 버리의 9월 30일 마감된 공시 기록이 공개됐다. 버리는 AI 기술 기업의 대표격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풋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자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으로, 이를 보유한 행위는 시장이 AI 기술의 거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산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또한 단순하지 않다. AI 산업은 지난 2023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천문학적 지출을 기록했고, 수익성은 미미했다.

지난 30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AI 핵심 사업인 ‘제미니(GEMINI)’ 등에 대한 매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AI 비즈니스 부문 매출을 공개하면서, 제미니를 비롯한 주요 AI 서비스를 검색·광고·클라우드·유튜브·구독 등 전 부문 실적과 함께 묶어 발표한 것.

오픈AI의 경우 기업가치는 50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지난해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MIT 공과대학이 올 상반기 조

사해 지난 9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주요 153개 기업 중 95%가 유의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IT 업계는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며 AI 거품론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5일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C NBC와의 인터뷰에서 “AI와 칩(반도체) 사업 전반을 공매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판단이 잘못 된 것으로 드러날 때 나는 기쁘게 춤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공개된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11억8000만 달러, 순이익은 4억7600만 달러로 큰 성장 여지를 증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AI 산업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 성장 단계에 불과하다”며 “과거 닷컴버블처럼 실체 없는 투기 열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IT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은 이제 막 상용화의 문턱에 들어선 단계”라며 “실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2026~2027년까지는 기술적 진화와 수익 모델 정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갤럭시XR(왼쪽)과 PICO VR 헤드셋(오른쪽)의 모습.

손끝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 착용감·조작감·몰입감

체험기

갤럭시 XR

간편 조작으로 가상현실세계 조작
일부 AI 연동 기능은 아직 아쉬워

기자의 첫 VR·XR 기기는 중국 브랜드 ‘PICO’의 제품이었다. 스마트폰을 전면부에 끼워 디스플레이를 대신하는 방식이었는데, 무겁고 조작감도 형편없었다. 해당 VR 기기는 ‘최신 기술’이라기보다 ‘불편하기만 한 장난감’에 가까웠다.

첫 만남이 유쾌하지 않아서였을까, 이번 갤럭시 XR 체험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기본적인 ‘착용감’과 ‘사용감’이었다. 갤럭시 XR의 공식 무게는 545g이었지만 딱 기본 좋은 수준의 묵직한 착용감이 느껴질 뿐 ‘무겁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뛰어난 무게 중심 덕에 고개를 빙글빙글 돌리거나 한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봐도 피로감이 거의 없었다.

조작감 또한 인상적이었다. ‘핀치(pinch·꼬집기)’ 제스처를 통한 조작은 처음 접하는 방식임에도 한 두번만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었다.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을 별개로 인식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의 쉬운 조작이 가능했다. 몇 번의 적응을 거치자 SF 영화의 등장인물마냥 이리저리 확확 자료를 넘기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유연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뚜렷한 강점이었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그리고 MR(혼합현실) 기능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기기 옆면을 두 번 터치하자 360도 시야각이 열리며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VR 공간이 펼쳐졌다. 산 정상을 테마로 한 환경을 불러오자 고소공포증이 있는 기자는 실제로 약한 현기증

을 느꼈다. ‘현실 같은 체험’이 만들어진 특별한 감각이었다. 가상 공간을 빠져나와 단 두 번의 ‘꼬집기’로 유튜브를 실행하자 현실 공간 위로 유튜브 영상이 겹쳐 떠올랐다. 현실-가상 간 괴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눈 앞에 있는 ‘실제 사람’과 ‘영상 속 인물’이 AR을 통해 마치 한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과의 연동 기능은 충분히 흥미로웠으나, 다소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제미니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아가 줘’라고 명령하자 곧바로 상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관련 정보가 눈앞에 팝업됐다. 구글 맵과 연동해 스트리트 뷰를 살펴보자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통해 눈앞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도 있었다. 다만 읽고 있는 외국어 지문을 막힘 없이 해석하거나, 사용자가 보고 있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피드백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르는 등, ‘AI 어시스턴트’ 기능에서는 다소 모자람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갤럭시 XR은 ‘착용감과 사용감’ 두 가지 영역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고화질 콘텐츠를 감상하고, 손끝으로 직접 세상을 조작하는 경험은 충분히 특별했다. 향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이 확장된다면 ‘차세대 현실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희준 기자 nauta@



갤럭시XR 내 화면.

/정희준 기자

美 섀다운·매파 발언 ‘이중 충격’… 비트코인, 한 달새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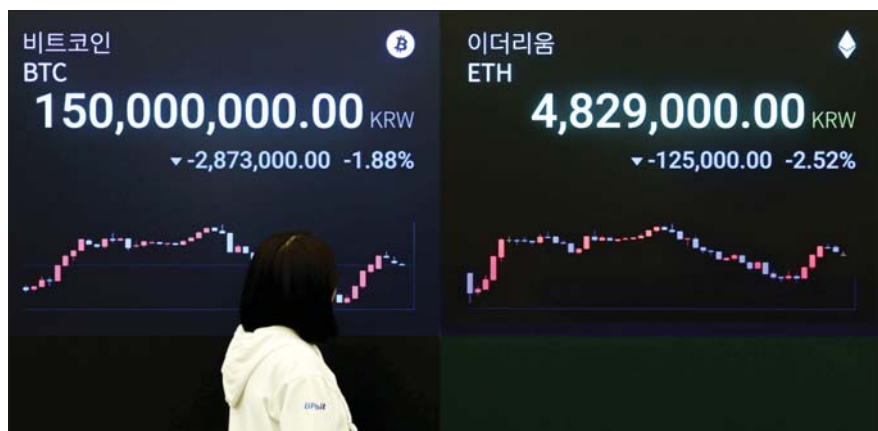
가상자산 하락세

주요 알트코인 최대 30% 급락
전문가들 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 달새 20% 가깝게 하락했다. 한때 1BTC당 12만6000달러에 달했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붕괴를 앞섰고, 주요 알트코인은 최대 30% 급락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 중인 미 연방정부 섀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연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급리인하 기대감도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6일 정오께 1BTC당 10만337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66%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내린 전일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지만, 지난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000달러와 비교해서는 한 달여 만에 18.4%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세는 더 거셌다. 이더리움(ETH·시총 2위)은 한 달여 만에 약 28% 하락했고, 리플(XRP·3위)은 23%, 바이낸스(BNB·4위)와 솔라나(SOL·5위)도 각각 23%, 31% 하락했다. 강제 청산(선물 거래 시 위험 노출 자산이 강제 매도되는 것)도 빈발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엽비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뉴시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이 장기화해서다. 앞서 지난달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미 민주당이 복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예산안 통과를 거부했고, 공화당도 협상을 거부해서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섀다운이 2주 내에 종료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협상이 불가함을 천명하면서, 섀다운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기록했던 35일의 최장 기록을 넘겨 지속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거듭된 매파적 발언으로 급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진 것 또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월 28~29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이번 회의에서 12월에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한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라며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에 놓여있지 않다”라며 12월 급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제프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 미 연준 내에서 ‘매파적 인사’로 꼽히는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조급한 급리 인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자문회사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케이티 스톡턴은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다음 안정적인 지지선은 9만42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3.4조 규모 민간 탄소중립 신규투자 전망

》 1면 ‘탄소감축 투자자…’서 계속

16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약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에 중점을 둔다.

또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누계 기준으로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발표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돼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